

광동제약, 치매치료 신약 임상2상 착수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치매치료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KD501>에 대한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KD501>은 광동제약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서울대 약대 김영중 교수팀, 천연물 전문 벤처기업 엘컴사이언스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 사업을 통해 전 임상시험을 끝냈다.

치매동물 모델을 이용한 효능 및 독성평가 실험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 높은 기억력 개선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독성이 거의 없는 약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상 완화에 그치는 기존 약물과는 달리 신경독성물질로부터의 뇌신경세포 보호작용, 항염증작용, 항산화작용 등의 복합적인 약리작용을 통해 뇌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3>